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가 올해부터 초기경전 중심의 지회별 소모임을 결성한다.
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노옥섭, 이하 공불련)는 2003년을 '공부하는 공무원 불자상' 정립의 해로 정하고, <아함경>, <법구경> 등 초기경전 중심의 기초교리 교육을 산하 206개 지회에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공불련의 이번 계획은 그동안 일방적인 전달 위주의 법문이 회원들의 교리이해도도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서 마련된 것이며, 법회 형식을 회원 중심으로 가져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특히 초기경전 중심의 공부소모임은 부처님의 원

초기경전 중심 지회별 소모임

공불련, 올부터 추진

음을 공부하려는 최근 불교계의 흐름을 반영했다. 이 같은 공불련의 신년사업계획은 앞으로 공불련 지회를 비롯한 다른 직장·직능불자회의 경전공부 소모임 결성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공불련은 우선 3월부터 산하 지회를 대상으로 경전연구 소모임 운영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지역 거점 사찰을 활용한 불교기초교리 강좌를 개설한다.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안홍부 사무국장은 "경전공부가 자칫 이론 중심으로 흐를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부처님의 원음이 생생하게 담긴 초기경전을 중심 교재로 삼았다"고 말했다. 김철우 기자

대덕단지 불자련 조직활성화 나서

불교입문교육·지회별 법회 강화 박사급 연구원 경전연구회 지원

태전사 원찰로 산사음악회 정례화

연합회는 지난 1987년 대덕연구단지 내 연구기관의 불자회가 모인 단체로,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전력연구소, 한국화학연구소, 전자통신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인삼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 등 9개 지회로 구성돼 있다.
연합회는 첫 사업으로 회원들의 불교입문교육을 강화한다. 지난해 11월부터 지도법사 도일 스님(태전사 주지)이 지도하는 2개월 과정의 입문교육을 연중 6회로 확대 실시한다. 또 2월부터는 1차 수료자 30명을 대상으로 참선전문교육과정도 진행한다. 이러한 회원교육은 단순 입문교육에서 '입문-

참선'으로 확대 개편된 '순환교육시스템'으로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연합회는 또 산하 9개 지회를 순회하는 합동법회를 병행한다. 이를 위해 먼저 지회별 법회 개최 시기 등의 현황을 이달 말까지 파악하고, 순회 합동법회 일정을 확정지를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연합회 창립 이후, 줄곧 제기돼온 지회별 지도법사와 회원 부족 등의 고질적인 문제가 다소 해소되는 것은 물론, 지회별 정보공유 체계가 구축된다.
이와 함께 연합회는 법주사 포교당인 태전사를 중심 원찰로 연계 활동을 강화한다. 지난해 1월 태전사에서 개최한 연합회 산사음악회를 올해부터

연간 행사로 정례화 하고, 지회별 경전연구회 결성도 지원한다. 특히 경전연구회는 1천여 명의 회원 중 절반 이상이 박사급 연구원인 점을 고려해 추진되는 것으로, 앞으로 회원들의 연구 분야와 연계해 활동을 펼친다.
김천석 연합회 회장은 "대덕연구단지가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조성된 연구단지인 만큼 연합회 활동이 회원들의 연구성과 제고는 물론, 신생활운동에도 도움을 주겠다"며 "올 해 실시되는 기본교리와 참선 등의 교육프로그램이 알차게 진행되는 데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우리불자회는요

서울불교산악회 금강메아리

'서울불교산악회 금강메아리.' 이름에서부터 우리 산악회가 '산(山)을 좋아하는 불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을 겁니다. 산을 좋아하는 법우들이 모였고, 법우들이 좋아 산을 찾습니다. 산을 사랑하다 못해 산에 미쳐버린 사람들. 우리는 언제나 산 정상에서 '뫼타의 메아리'를 전하고 있는 신행단체입니다.
창립은 지난 93년 12월에 했습니다. 현재 대한불교 전국산악인연합회 사무총장으로 있는 김대원 법우님이 창립을 제안하면서부터 지금에 이르고 있지요. 당시 서울조계사 신행단체 임원으로 활동 중이던 김 법우님이 '산행하면서 법회를 보자'고 제안해 몇몇 불자산악인들이 의기투합했던 겁니다. 첫 산행법회 때는 회원이 10명

있지 않는답니다. 아무리 산이 좋아만 사람들이지만 불자임을 잊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산악회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뫼니뫼니 해도 정기산행과 성지순례를 겸한 산상법회(山上法會)입니다. 힘겹게 오른 산 정상에서 여는 법회. 파란 하늘은 후불행화가 되고, 넓은 바위는 불단이 되어 줍니다. 이쁜이요? 우리가 봉독하는 <반야심경>은 '금강의 메아리'가 돼 온 산을 휘감고 돌아온답니다. 법열이 느껴지지 않나요? 산상법회가 끝나면 회원들은 준비해 온 도시락으로 공양을 하고, 장기 자랑과 법담을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말 그대로 야단법석인 법회를 보자'고 제안해 몇몇 불자산악인들이 의기투합했던 겁니다. 첫 산행법회 때는 회원이 10명

산상법회 큰 자랑...짧지만 긴 여운

성금 모아 군법당·복지시설 방문도



◇지난해 겨울 서울 수락산에서 '산행법회'를 마친 서울불교산악회 금강메아리 회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도 되지 않았습디다. 하지만 우리 산악회는 매월 두 차례의 정기산행법회는 물론 자연보호 활동, 사회봉사활동 등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회원 2백여 명의 알찬 불교 산행단체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우리 회원들 모두는 산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때문에 우리 산악회는 매월 두 번씩 전국의 산과 사람을 찾아 떠납니다. 매월 첫째 일요일은 서울 근교로, 셋째 주 일요일은 강원, 충청, 경상, 전라, 제주 등 그야말로 전국을 누비고 다닌다고 있지요. 이쁜만 아닙니다. 성금을 모아 군법당, 소규모 복지시설을 분기별로 방문하는 것도

올해 우리 산악회는 창립 10돌을 맞이하게 된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불자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생각입니다. 신규회원 확보를 위해 우리 단체를 불교계 안팎에 널리 홍보하고, 창립 10년사를 책으로 발간할 예정입니다. 이에 더하여 전국 불교산악회들로 구성된 대한불교전국산악인연합회 사업에도 적극 참여할 것입니다. '깨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금강의 메아리'와 같이 우리 서울불교산악회는 부처님의 법을 율곡에 실천하는 참된 불자산악인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02)730-1080
서울불교산악회 회의실 송우

우리 모임에선

대구광역시청 유마회 금강경 강좌

대구광역시청 유마회(회장 강재형)는 2월 6일 대구 삼덕동 관공사 대웅전에서 <금강경> 교리 강좌 법회를 연다. 회원 100여명이 참석하는 이번 법회에서는 대구 동화사 강주 해월 스님이 강의를 한다.

부산본부세관 관우불교회 정기법회

관제청 부산본부세관 관우불교회(회장 현우길)는 2월 11일 부산 당리동 관공사 대웅전에서 정기법회를 병행한다. 이날 법회에서는 성지순례 법회, 수계 법회 등을 신년사업계획을 논의한다.

함양군청 불교회 창립1주년 기념법회

경남 함양군청 불교회(회장 박영일)는 2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불자회 창립 1주년 기념법회를 병행했다. 회원 40여 명이 참석한 이날 기념법회에서는 황대선원 선원장 성수 스님을 초청, 법문을 들었다.

맑은 정성, 맑은 햇살로 빛은 사찰토종매주 불사

금강경 독송회에서는 참사리가 내려앉은 음력 10월이던 매번 매주를 만들어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리고, 결식아동을 돕기 위해 매주 불사를 합니다.
금강경 북 매주는 공부하는 수행자들이 금강경 7목과 정진을 하면서 손으로 직접 만들기 때문에 정진 의의와 정성이 더욱 들어있습니다.
북 매주는 100% 우리농산물 가마솥에 삶은 대 울림과 장작을 이용하며, 따스한 햇볕과 바람, 그리고 황토로 만든 흙집에서 40일간 자연발효 시킨 전통 무궁해 매주입니다. 해마다 드셔보신 분마다 몇 차례가 맞고 그대로 매이 있어 아주 좋다고 하십니다.
매주 주문은 아래 연락처로 전화주세요.
참기름과 된장(죽임), 고추장, 조림간장, 국간장, 분말매주도 언제든지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연락처 : H·P 011-203-6567, 019-820-5587
포항 054)261-2231 / 서울 02)742-0172 / 부산 054)514-3566 / 대구 053)425-3063
울산 052)245-0337 / 대전 042)862-8638 / 창원 055)299-5419 / 수원 031)253-2677
군산 063)452-7852 / 광주 062)681-3268 / 경북 033)642-0987
매주1말 6kg 57,000원

인천국제공항경찰대 불자회 창립

◇동북아시아의 관문을 지키는 인천국제공항 경찰대가 21일 공사 1층 강당에서 불자회 창립법회를 병행했다. 사부대중 450여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는 전인배 불자회 회장의 경과보고, 초대 경승실장 계성 스님(강화 전등사 주지)의 법어, 조계종 포교부장 일관 스님의 격려사 등으로 진행됐다.



단체장



공인회계사 불자회 한 돌
박노영 공인회계사 불자회 회장은 15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창립 1주년 기념법회를 병행하고 신년사업계획을 논의했다.



'불교와 현대생활' 주제 법회
김은표 국방과학연구소 성불회 회장은 23일 연구소에서 대전 계룡대 정우 법사 초청, '불교와 현대생활'이란 주제로 정기법회를 병행한다.



대전청사 반야회 합동법회
김창균 대전정부청사 반야회는 2월 6일 오후 7시 대전 백제불교회 관에서 청사 내 불자회 합동정기법회를 병행한다.



중랑경찰서 '친불가 배우기'
오성열 서울 중랑경찰서 법우회 회장은 23일 12시 경찰서 내 경승실에서 경승실장 법만 스님과 함께 친불가 배우기 법회를 병행한다.

가시오가피하면, 함박재



국내 최대 가시오가피 재배자 강훈구 대표

함박재를 꼭 확인하세요!

함박재농장에서 20년간 재배한 100% 국내산 가시오가피 사용!

- ▶ 10만명의 대규모 직접 농장
- ▶ 충남향토지적재산으로 선정
- ▶ 한국표준 협회 으뜸상품으로 선정



■ 국제 생약학계의 권위자 독일 바그너(H.Wagner)박사도 격찬한 "함박재 가시오가피" (2002.7.24 함박재농장명문)

▶ 지금 전화주시면 가시오가피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KNS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기업 (주)한국자연과학 www.ogapiland.co.kr

전화상담 및 자료신청 : (02)2272-4900

승복, 법복안내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항상 처음 이라는 자세로 변함없이 제품 생산·연구에 임하는 저희 업체에서는 부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성껏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고급 재질에 세련된 디자인으로서 저렴한 가격으로 스님 및 불자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많은 지도도반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 예동승복 직원일동 -

추동복	1. 적삼, 조끼, 바지 W160,000	2. 통방, 바지 W160,000	3. 두루막 W140,000	4. W60,000
누비	5. 적삼, 조끼, 바지 W320,000	6. 통방, 바지 W320,000	7. 두루막 W250,000	8. 모직누비 W220,000
간누비	8. 저 초 W50,000 (4여벌, 4종도형) 바지 W60,000	리온도형 W30,000	자이내형 W30,000	

※ 장삼, 가사, 비망 및 기피의류는 맞춤주문 받습니다.
해동승복 대구 교차로 4층 399-1 대구광역시 중구 신천 4동 399-1 TEL : 053)741-8131 FAX : 053)741-8132 H.P : 011)549-8130 ※ 지역 대리점 모집

원효종 승가대학 원효불학원 학인 모집

원효종 승가대학 경주 복원사 원효불학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 ◆ 모집인원 : 사미 0명
- ◆ 수학기간 : 2년 (대중생활)
- ◆ 수학내용 : 초발심 자경문, 사미율의, 치문, 도서, 불교학개론, 대승기신론, 소, 별기 불교의식
- ◆ 입학식 : 2003년 3월 4일 오전 11시

원효불학원

원장 : 영운
강주 : 우궁

경주복원사 054)745-3646

경주시 현곡면 내태리 875